김효정 제안

**기상청 날씨 데이터를 활용한 노지 감귤 출하량 예측**

1. 연구제안배경: 작년 제주도의 폭설로 인해 감귤 생산량이 극도로 줄어들고 품질 또한 심히 떨어져 주문량을 채우지 못했을 뿐더러 비상품 귤들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듯 날씨에 따라 야외에서 재배하는 노지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감귤의 품질과 생산량에 따라 시장의 가격이 급변하게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품질 감귤의 일부를 비상품으로 구분해 처리하는데 날씨 데이터를 이용한 비상품 감귤량 예측 모델을 통해 처리 방안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예상연구과정: 기상청의 날씨 데이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감귤출하연합회에 있는 년도별 감귤 유통처리 분석 데이터를 이용한다. 날씨에 영향을 받는 노지 온주가 분석 대상이 된다. 감귤의 출하량은 도외상품, 가공, 수출, 군납, 시장격리로 구분이 되는데 비상품은 가공용과 시장격리 출하량이다. 기상청에서 얻은 매해 날씨 데이터와 그 해에 감귤 출하량, 비상품량 데이터를 분석해 날씨에 따른 비상품 감귤량 예측 모델을 고안한다.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1. 연구결과 활용 방안과 예상이점: 날씨에 따른 비상품 감귤량을 예측할 수 있어 비상품 감귤을 처리할 방안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다.